한국학연구 제62집 | 219~243쪽 | 2021.8.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 연구*

한성우**

〈차 례〉

1. 서론
2.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의 특징
3.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특징
4.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변화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대상 지역인 서해 중부 도서는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지역의 여러 섬을 가리킨다. 이들 섬의 언어가 인근 육지 및 다른 섬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 지역은 인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인천 연안도서, 강화도, 서해5도로 세분할 수 있다. 인천 연안도서 중 인천에 인접해 있는 섬들은 경기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서해5도는 황해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권과 황해권 중간에 위치한 강화 지역은 경기-황해 전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방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기 남부 지역은 경기-충청 전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역어는 중부방언의 특징을 공유하며 각 권역별로 고유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으로서 주변성, 공통성, 불연속성 등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도 보인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해도 지역과의 단절,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이 지역어는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언의 탈색화와 인천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제어] 서해 중부 도서, 인천 연안도서, 서해5도, 중부방언, 경기방언, 충청방언, 황해방언, 주변성, 불연속성, 방언의 탈색화, 인천화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4647).

**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서론

본고는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서해안의 특성상 이 지역에 많은 섬이 있는데 본고의 대상 지역인 서해 중부 도서는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지역의 여러 섬을 가리킨다. 이들 섬의 언어가 인근 육지 및 다른 섬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1] 또한 이 과정에서 도서 지역의 언어 형성과 그 변화 과정, 그리고 인근 육지의 거점 및 외적인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한반도의 남서해안에는 많은 섬이 있는데 서해의 섬은 남부의 전라도 유역과 중부의 경기도 유역에 집중돼 있다. 한반도의 중부 지역으로 구분되는 충청도 유역에도 섬이 있으나 그 수나 규모 면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다. 황해도 유역 또한 충청도 유역과 비슷하게 섬의 수는 많지 않으나 통상 서해5도로 불리는 섬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경기도 유역의 여러 섬과 과거에 황해도에 속해 있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편입된 여러 섬의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2]

도서 지역의 언어는 통상적으로 인근의 육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섬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 도서 지역의 언어가 인근의 육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두 지역 사이의 밀접한 교류와 관련이 있다. 즉 인근 지역에서 섬으로 이주를 하고, 섬 인근의 육지와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언어적 면에서도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관계가 단절되거나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양상이 단절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장의 형성과 이로 인한 인력의 집중, 정치 상황과 관련된 교류의 변화 등은 통상적인 언어 형성과 변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초래하기도 한다.[3]

---

1) 이하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은 '이 지역'으로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는 '이 지역어'로 약칭한다.

2) 이 섬들은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시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현재는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일 수 있으니 해상교통이 인천으로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룬다.

경기도 유역의 섬으로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여러 섬들의 언어는 인근 육지와의 유연성을 보이는 동시에 바닷길과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특수성도 함께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지만 거리나 뱃길로 충청도와 더 가까운 경기 남부의 섬들은 언어 면에서는 충청방언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옹진군 북부의 서해5도는 본래 황해방언권에 속하나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와의 교류가 끊기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는 섬 자체의 크기와 역사적인 이유로 독자적인 언어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강화군에 속한 인근의 교동도는 강화도와 다른 언어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이 지역어는 도서 지역 언어의 본래적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서 지역은 바닷길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언어적 특징과 관련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평안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황해도와 인접한 강화군의 교동도에 나타나는가 하면 같은 특성이 충청남도의 태안군의 해안에서도 나타난다. 강화군과 태안군 사이의 육지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바닷길을 통한 도서 지역 언어의 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한 육지의 언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언어적 특징이 이 지역의 섬 언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육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접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언어의 전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도서 지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일부 섬에는 과거 대형 어장이 형성되기도 하여 전국의 어선 및 어민이 집결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서해5도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원주민보다 많은 외지인이 유입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어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도서 지역 언어의 전반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3) 바다, 섬, 항구와 관련된 도서 및 해안 지역어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성우(2016)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바다는 방언 '단절'의 원인이지만 바닷길을 통한 방언의 '도약'이 나타나고 항구는 각 섬의 매개체로서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함을 밝혔다.

이 지역어 변화의 중심에 거대도시 인천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의 여러 섬이 행정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나 이 지역의 뱃길이 모두 인천으로 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출입은 대부분 인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지역 주민의 육지 정착도 인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언어 면에서도 인천 지역의 언어가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2009년도 이후 인천 및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간의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4)]

[표1]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 조사 및 연구 과정과 결과

□ **인천 토박이말 조사 및 연구**(2009년) 문학동, 월미도, 숭의동 대상 조사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 연구원 □ **강화 토박이말 조사 및 연구**(2011년) 교동, 화도, 양사 대상 조사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 연구원 □ **인천 연안도서 토박이말 조사 및 연구**(2014년) 영종, 덕적, 영흥 대상 조사 『인천 연안도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 연구원 □ **서해5도 지역어의 방언학적, 사회언어학적 연구**(2017~18년) 백령, 대청, 소청, 연평 대상 조사 「서해5도 지역어와 방언구획」, 방언학회 □ **『인천말 연구』**, 2017년, **소명출판** □ **『가깝고도 먼 인천말』**, 2018년, **글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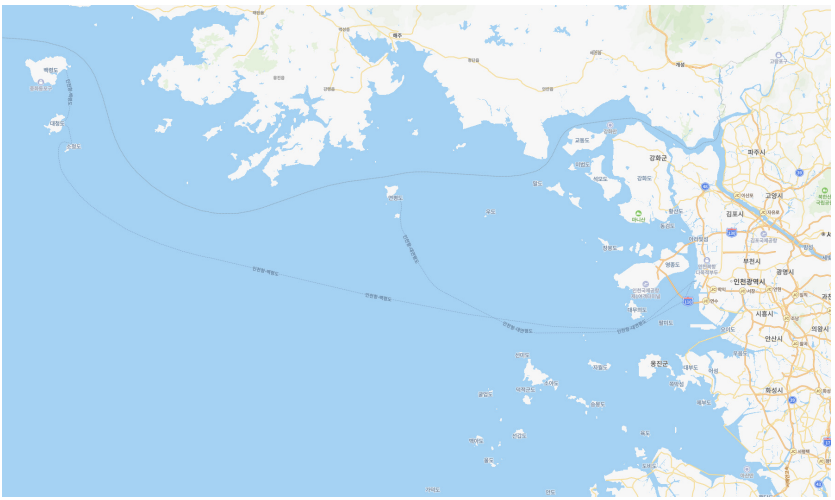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와 연구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일반성 및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특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 지역을

4) 인천, 강화, 인천 연안도서에 대한 세 차례 연구는 인천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에 따른 『인천말 연구』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에 따른 『가깝고도 먼 인천말』로 집약되고 정리되었다.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한국전쟁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 지역어의 변화를 살펴본다.

2.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의 특징

이 장에서는 이 지역의 특징과 권역을 살펴본다. 서해 중부에 있는 섬 중 규모가 크고 거주자가 많은 섬은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충청도에 인접한 지역에도 몇몇 섬이 있으나 크기도 작고 주민도 많지 않아 주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황해도의 옹진반도 인근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접근과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영토에 편입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그림1] 서해 중부의 섬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중부 도서의 권역을 구분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서해 중부 도서의 권역 구분

경기도 인근에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이 많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인천광역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개항 이전에는 규모나 역할 면에서 존재가 미미했으나 개항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거대도시가 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 지역의 많은 섬들이 인천에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섬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에 포함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인천을 중심으로 권역 구분을 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구역상의 인천이 아닌 본래 인천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원인천(元仁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5] 다음으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화 지역을 따로 묶을 필요가 있다. 강화 지역에는 교동도를 포함한 강화도 인근의 섬까지 포함된다. 원인천에서 가까운 바다의 섬 덕적도, 영흥도, 영종도 등은 연안도서로 묶을 수 있고, 먼 바다의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은 원해

5) 인천과 인천 연안도서, 원해도서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세분이 필요하여 설정된 명칭이 '원인천'이다. 원인천은 거대도시로 성장한 오늘날의 인천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인천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본고에서의 원인천은 육지 지역의 인천을 가리킨다. 원인천은 매우 중층적인 도시여서 한성우(2009)에서는 인주 관아 및 향교가 있었던 문학동, 바닷가였던 월미도, 개항 이후 성장한 도심인 숭의동 세 곳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서로 묶을 수 있다.

강화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경기 지역의 일부이지만 지리적인 면에서는 서북부 외곽에 치우쳐 있다. 동쪽으로는 김포시와 가깝고 북쪽으로는 황해도에 인접해 있다. 특히 교동도는 북쪽으로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하고 있고 강화도나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 황해도 지역과의 연계성이 훨씬 더 높다. 또한 고려 이후 강화는 수도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도 했으며 주요 유배지이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강화 지역의 언어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연안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으면서 인천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들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연안도서'란 의미이지만 인천이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지리적으로는 '경기지역의 연안도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영종도는 행정구역상으로도 인천시 중구에 속해 있는데 나머지 섬들은 옹진군의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에 속해 있다. 영종도와 북도면의 섬들은 인천과 매우 가까우나 덕적면과 영흥면의 섬들은 충청도와도 매우 가깝다.[6] 그리고 서해 중부의 여러 섬을 옹진군으로 묶어 옹진군을 다시 인천광역시에 편입시킨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 지역의 섬들을 인천의 연안도서로 봐도 무방하다.

원해도서는 서해5도로 불리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옹진군에 속해 있지만 황해도 지역에 있는 섬들을 가리킨다. 인천이나 경기지역으로부터는 원해이지만 황해도와는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오히려 황해도 연안도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는 본래 황해도에 속한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후 북한 지역과의 소통이

6) 이 지역의 섬들을 지도상으로 보거나 현지에서 실제 조사해 보면 바닷길을 통해서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놀라게 된다. 황해도에서 충청남도까지 육지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자면 그 거리도 멀고 하천이나 만으로 인한 장애물도 많다. 그러나 황해도의 옹진반도와 충청도의 태안반도 사이가 '경기만'이라는 커다란 만 구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섬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 또한 인천에 충청남도 출신이 많이 거주하게 된 것도 충남 해안과 인천이 뱃길로는 가깝다는 데 이유가 있다.

끊기고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성상 많은 외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 지역이 본래 황해도에 속한 지역이었다는 점은 이 섬의 언어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분단 이후 인천을 비롯한 남쪽 지역과 소통을 하고 외지인들의 유입도 많아져서 언어적으로도 변화할 소지가 매우 커졌다.

원인천 지역은 서해 중부의 도서 지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의 언어 외적, 내적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인천 지역도 중층적이어서 인주 관아가 있던 지역, 어촌 지역, 개항 이후 형성된 도심 지역이 원인천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개항 이전에는 인근의 섬들과 통상적인 교류 관계만 있었는데 개항 이후 인천이 거대 도시가 되고 행정적으로도 인근의 여러 섬을 포함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천이 중층적인 도시여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도서와 원해도서의 교류 통로라는 점 모두가 이 지역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3.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7] 이를 위해서 2장에서의 권역 구분과 관련지어 방언권 구분을 먼저 시도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언권의 특징을 음운, 어휘, 문법형태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이 지역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나아가 다른 방언권 혹은 육지 지역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적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7) 본고는 이 지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고 지면상의 제약도 있으므로 개별 지역어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세히 제시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는 [표 1]에 제시된 조사 및 연구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의 방언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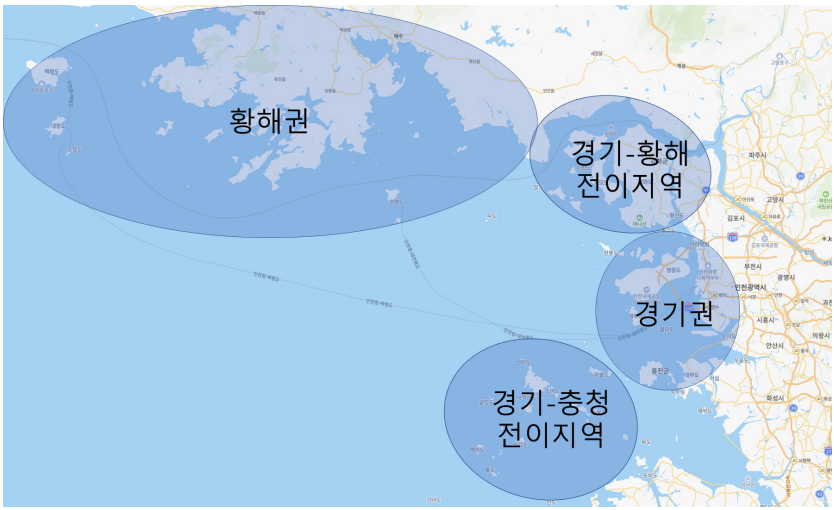
한국어의 방언구획 상 이 지역은 중부방언에 속한다. 중부방언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포괄하는데 이 지역의 대부분은 경기도에 인접해 있고 북부 일부만 황해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섬 지역의 방언은 인접한 육지 지역의 방언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어가 중부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서해 중부의 여러 섬들을 실제 조사한 결과도 중부방언의 일반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운체계인데 자음체계는 서북방언을 제외하면 한국어 전체가 일치하므로 모음체계의 대비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중부방언은 전반적으로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의 10모음 체계로 보고 있는데 황해도 및 강원도 일부에서 'ㅟ'가 불안한 지위를 보이고 있다(김봉국 2003). 이는 본고의 대상인 이 지역어의 특성과 일치하기도 한다. 중부방언은 모두 음장이 변별되는데 본고의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다. 기타 중부방언의 음운론적 사실과 이 지역어의 음운론적 사실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중부방언도 지역에 따라 하위분화가 가능하므로 이 지역어도 각각의 특징과 인접 육지 지역어의 특징과 비교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어의 방언구획은 [그림 3]과 같이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섬 인근 육지의 방언구획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 지역어는 크게 보았을 때 경기권과 황해권으로 양분할 수 있다. 섬 지역의 언어가 인근 육지의 언어와 유사성이 있고 방언구획도 이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양분은 타당한 구획이기도 하다.또한 실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인천 연안의 영종, 장봉, 무의도 등은 경기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 또한 통상 서해5도로 불리는 섬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는 황해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

경기권과 황해권 중간의 강화도와 연안도서 중 남쪽의 일부 섬은 전이지역의 성격을 보여준다. 강화군에 속한 섬 중 교동도는 황해방언의 특징이



[그림3] 서해 중부 도서의 방언권 구분

매우 많이 나타나며 강화도는 전반적으로는 경기방언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는 황해방언의 특징도 나타난다. 연안도서 중 남부의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는 경기방언권과 충청방언의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 따라서 강화도와 교동도는 경기권과 황해권의 전이지역으로, 경기 남부의 섬은 경기권과 충청권의 전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직접적인 언어지표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방언권 인식이나 진술도 방언권 구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본래 다른 방언권이었으나 정치적 상황과 행정구역 변화로 다른 방언권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이 의미가 있다. 황해권의 여러 섬들의 주민들은 이 지역의 방언이 황해방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한다.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도 많은

8) 본고에서는 전이지역으로서 두 지역을 설정했는데 경기-황해 전이지역은 자체적 특징 및 황해방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데 반해 경기-충청 전이지역은 자체적 특징도 희미하고 충청방언의 특징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이는 경기-황해 전이지역인 강화도가 규모도 크고 언어 정체성도 분명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황해방언이 경기방언과 구별되는 특징이 더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충청 전이지역의 섬들은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인 언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충청방언은 황해방언에 비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충청 전이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데 이들 또한 이 지역의 본래 말이 남쪽의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이 지역어의 언어적 특징과 맞물려 이 지역어가 황해방언권이었음을 확인해 준다.

전이지대 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진술도 방언권 구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전이지대 주민들의 언어 정체성에 대한 진술은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진술과 인접 지역의 언어에 대한 진술 모두를 참조할 수 있다. 북쪽의 전이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강화도 주민의 경우 자신들의 말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 말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말 속에 황해방언의 특징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동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말이 강화도의 말과는 차이가 있고 황해도 지역의 말과 더 가깝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또한 실제 언어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

남쪽의 전이지역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덕적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말이 충청방언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진술과 함께 위쪽의 섬이나 경기도 쪽의 육지와는 다소 다르다고 진술한다. 육지에 더 가까이 있는 영흥도 주민들은 이러한 언급이 거의 없다. 덕적도와 영흥도 사이에 있는 자월도 주민들은 경기도의 육지와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자신들의 언어는 충청도 말에 가깝다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는 이들 섬이 거리상 충청도와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뱃길로는 충청도 지역과 더 소통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2)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언어적 특징 비교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와 중부방언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

9) 강화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어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진술하는 것이 어미 '-시까/-시꺄'와 '-시겨'이다. 이러한 어미가 경기의 다른 지역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어미는 황해방언의 영향인데 분단 이후 황해도 지역과의 교류가 끊겨 이 어미가 황해방언의 어미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어미들은 노년층이 자신들끼리 대화할 때만 나타난다.

의 진술을 종합하여 이 지역어의 방언을 구분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음운체계인데 자음체계는 모든 지역이 같으므로 모음체계의 비교만 의미가 있다. 먼저 경기권과 황해권의 모음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경기권과 황해권의 모음체계

경기권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황해권			
ㅣ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경기권은 10모음체계인 데 비해 황해권은 9모음 또는 8모음체계이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전설원순모음으로서 황해권은 전설원순모음이 없거나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인다. 백령도는 8모음체계이고 대청도와 연평도는 9모음 체계인데 'ㅚ'가 단모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중모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중부방언의 하위방언인 경기방언 및 황해방언의 일반적인 모음체계와 일치하는 것이어서(김봉국 2003) 경기권과 황해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경기권과 황해권의 전이지역인 강화 지역과 경기권과 충청권의 전이지역인 경기 남부 도서의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서해 중부 도서 전이지역의 모음체계

경기-황해 전이지역(강화)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경기-충청 전이지역(경기 남부 도서)			
ㅣ		ㅡ	ㅜ
ㅔ		ㅓ	ㅗ
ㅐ		ㅏ	

강화 지역은 전형적인 10모음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음체계 면에서는 경기방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경기 남부 도서인 덕적, 영흥, 자월 등지에서는 전설원순모음이 확인되지 않는 8모음체계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두 지역을 모두 전이지역으로 분류했는데 모음체계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강화 지역이 8~9모음 체계의 황해권과 10모음 체계의 경기권 사이에 있으므로 황해권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형적인 10모음체계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경기권으로 분류된 영종이나 장봉에서도 전설원순모음이 불안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강화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기의 육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음체계 양상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강화 지역이 일반적인 섬과는 다른 독자적이고도 견고한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0)]

경기와 충청의 전이지역인 경기 남부의 섬에서는 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경기방언과 충청방언은 모두 10모음체계인데 이 지역어는 전설원순모음이 없는 8모음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모음체계는 경기나 충청의 영향이 아닌 도서 지역 특유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나 충청의 육지 지역은 오랜 기간 언어 정체성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데 비해 섬 지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모음체계 또한 안정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음체계를 제외한 다른 음운론적 양상은 각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부방언 전체에서 모음체계를 제외한 음운론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이한 활용양상 및 몇몇 어미와 어휘적 특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이 지역어의 방언권 구분에 도움이 된다. 교동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있-'은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 지역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앗/엇-'이고 '있-' 또한 '잇-'으로 나타난다. 이는 평안도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황해도 연백에

10) 이러한 양상은 강화도의 규모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가 비록 섬이지만 크기와 인구로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고려시대 이후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오기도 했다. 따라서 강화도가 섬이지만 육지와 다름없는 언어적 속성을 보일 수 있다.

접해 있는 교동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황해방언의 영향이 경기-황해 전이지역에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11)]

동사 '듣-'의 활용양상은 황해권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중부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서는 '듣-'이 '듣고, 듣지, 들어, 들으니'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런데 서북방언에서는 '듣-'이 '듣고, 듣지, 듣어, 듣으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이러한 규칙 활용은 황해방언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는데 본고에서 황해권으로 분류한 서해5도의 섬들에서도 역시 규칙 활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교동에서도 역시 '듣-'은 규칙 활용을 한다. 인접한 강화도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데 비해 황해도 지역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동도에서는 황해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황해권의 영향 및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사 '오-'의 활용도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황해권의 서해5도에서는 '오-'가 '오고, 오지, 오느, 오느서, 오니'와 같이 활용한다. 'ㅗ'말음 어간은 부사형어미 '-아'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활음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가 수반된다. 그러나 '오-'만은 필수적으로 활음화가 나타나는 데 비해 보상적 장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활용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서해5도의 섬과 교동에서는 '오느, 오느서'와 같이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활용양상을 보여준다.[12)] 이러한 특징은 서해 중부 도서의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강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듣-'의 활용양상과 일치한다.

어미 '-시까/시꺄'와 '-시겨'도 황해권 및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어미는 '했시까/했시꺄'나 '오시겨'와 같이 서해5도, 강화지역의 노년층에서 종종 쓰인다. 이 어미는 황해방언의 전형적인 어미인데 황해권인 서해5도와 경기-황해 전이지역인 강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

11) 교동과 달리 강화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동은 황해도와 인접해 있고 강화는 김포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2) 이러한 활용형은 충남 서해안의 태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서술한다.

나 오늘날에는 강화는 물론 서해5도의 섬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이들 섬이 황해방언의 외곽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런 어미의 사용 양상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3)]

친족명칭과 '김치' 관련 어휘도 황해권과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어머니'는 황해방언에서는 '어머이, 오마이, 옴마이' 등으로 나타나는데 서해5도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강화에서도 드물게 '어머이'가 나타나기는 하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 '장인'과 '장모'의 경우 황해방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언형 앞에 '가시'를 붙이는데 서해5도에서는 황해방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강화나 교동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김치'의 방언형 분포도 친족명칭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황해방언에서 '김치'는 '짠지'로 나타나는데 서해5도 또한 '짠지'로 나타난다. '김치'가 '짠지'이기 때문에 '짠지'는 '짠 김치'란 의미로 '짠짠지'가 쓰이는데 서해5도 전체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강화에서는 '김치' 또는 '금치'로만 나타난다.

이상의 활용, 어미, 어휘 등을 보면 황해권 및 경기-황해 전이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기-충청 전이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기방언과 충청방언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황해방언은 중부방언에 속하지만 황해도 북부는 평안도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황해도 전 지역에 북부방언의 특징이 많이 관찰된다. 그러나 충청 북부는 경기 지역과 언어적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해 중부의 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경기-충청 전이지역과 경기 지역을 구분해 줄 전형적인 언어적 특징은 많지 않은 편이다.

---

13) 강화나 서해5도 지역을 조사할 때 이러한 어미는 일부러 유도하지 않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제보자들도 노년층끼리 장난스럽게 말할 때나 자신들의 방언을 일부러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말한다.

3)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공통적 특이성

서해 중부 도서가 인접한 육지 지역에 따라 방언권 구분이 가능하고 각각의 권역과 전이지역에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역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통성은 이 지역이 섬 지역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섬 지역은 각 방언권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육지의 핵심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바다와 관련된 생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생활면에서의 유사성이 언어에까지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바닷길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섬이 속한 방언권과 관계없이 언어적 공통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의 연결고리 없이 먼 지역의 방언형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이 각 방언권의 전형적인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주변성'이라 특징지을 수 있다. 경기권과 황해권의 섬들은 황해방언과 경기방언에 속하지만 각 방언의 전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경기방언은 10모음체계인 데 비해 경기권에 속한 도서지역의 모음체계는 8모음체계로서 차이를 보인다. 황해권에 속한 도서지역 또한 8모음체계나 불안한 9모음체계로서 황해방언과 차이를 보인다. 여러 섬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각 방언권의 전형적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변성은 도서지역이 방언권의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모와 인구에 따른 자체적인 언어 응집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도서지역의 인구는 섬의 크기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서해 중부 도서 지역은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큰 섬이 없다. 따라서 주민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아 공고한 언어 정체성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는 규모가 큰 강화도는 모음체계의 주변성 면에서 예외를 보인다는 것에서도 증명이 된다. 강화도는 그 규모만큼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랜 지역적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경기-황해 전이지역으로서 각 방언권의 주변에 있지만 독자적인 언어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도서 지역의 삶이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러 섬들은 각 섬이 속한 방언권과 관계없이 유사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공통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어업이 발달한 대청도와 덕적도는 각각 황해권과 경기-충청 전이지역에 속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나 물때 용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15] 덕적도와 연평도 인근에 거대한 어장이 형성되어 전국의 배들이 몰려들고 파시가 형성된 것도 공통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배와 어부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레 이들끼리 교류가 일어나면서 뱃일과 관련된 말이 공유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말은 뱃사람들 사이에만 공유된다는 점에서 이들 도서 지역어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16]

덕적도에서 황해방언의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 것 또한 공통성과 관련이 있다. 덕적도에는 황해도 출신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덕적도 인근에 큰 어장이 형성되었던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전쟁 전후에 황해도의 선주나 어부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상당수가 덕적도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오늘날 이들은 덕적도 주민의 일부로서 덕적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닷길로 연결되어 있어 육지나 중간 섬의 연결고리 없이 먼 지역의 방언형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연속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불연속성의

---

14) 규모도 비교적 크고 최근 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영종도의 경우에도 응집성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영종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그 이전의 거주 인구는 거의 많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언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수의 외지인이 유입되어 언어 정체성은 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모음체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들이 불안한 상태를 보여준다.

15) 이러한 용어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다. 덕적도의 동서남북 방향에서 부는 바람 이름은 차례로 '된바란, 늦파람, 마파람, 하늬바람'인 데 비해 전라북도 인근의 어청도의 바람이름은 차례로 '샛바람, 빠람, 마파람, 고든하누'이다(이숭녕 1956).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바람 이름과 물 때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같다는 것은 육지 지역과 구별되는 도서 지역어의 공통적 특이성이라 할 수 있다.

16) 과거 큰 어장이 형성되어 전국의 배와 어부들이 몰려들었던 덕적도에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고유한 어휘들이 남아 있다. '작사(해변의 주막), 뱀자(선주), 건뱀자(가선주), 쌈판(상고선), 영자(선원 중 최고령자)' 등이 그 예로서 비슷한 환경이었던 연평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거대 어장 덕에 다양한 지역 방언과 특정 직군의 용어가 융합돼 나타난 것으로서 이 지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백령도와 교동에서 확인되는 동사 '오-'의 활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지역에서는 '오-'가 '오느, 오느서'와 같이 활용되는데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황해방언의 영향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 양상이 충청 서해안의 태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양상이다. 교동이 접해 있는 김포와 태안은 육지로는 매우 멀지만 바닷길로는 가깝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불연속성이 다양하고도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덕적도에서 확인된다. 덕적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바대(바다), 니알(내일), 너물(나물), 조구(조기), 했으라우(했어요), 했간디?(했나?)' 등은 남쪽의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의 말들이다. 특히 '했으라우'나 '했간디' 등에 나타나는 어미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어미이다. 더욱이 제주도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뉘절(파도의 머리), 두지(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오는 날씨), 홀목(손목)' 등이 덕적도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과거 제주 지역의 뱃사람들이 덕적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조업한 결과이다.

4.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변화

이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한국전쟁 이후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서술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 지역어의 자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매체, 교육 등에 의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인 외에 이주와 교류, 타지역 주민의 급격한 유입 등에 의해 일반적인 변화와는 다른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일반적인 변화

서해 중부 도서 지역에서도 방언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모음체계의 변화이다. 서해 중부 도서의 모음체계가 중부방언의 일반적 모음체계에 비해서 불안정하기는 하나 'ㅔ'와 'ㅐ'는 분명히 변별되었다. 그러나 50대 이하 세대에서는 이 두 모음이 합류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ㅟ'와 'ㅚ'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ㅔ'와 'ㅐ'의 합류가 나타나 서해 중부 도서 전체가 전반적으로 7모음체계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음체계의 변화는 전국에 걸쳐 젊은 세대에 나타나는 변화이므로 이 지역어만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교육과 매체에 의해 표준어 및 중앙어가 널리 전파되어 지역 방언의 색채가 약화되는 일반적인 변화도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섬 지역의 인구 이동이 잦아지면서 언어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어의 모든 방언이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2) 탈색화와 인천화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다른 지역에서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언어변화가 매우 빠르고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언의 탈색화'라 특징지을 수 있고 그 배경으로 인천을 꼽을 수 있다. 언어변화는 모든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방언색이 탈색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는 그 양상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언어 내적 요인 외에 외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어 중 방언의 탈색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황해권으로 분류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본래 황해도 지

역이었고 언어적으로도 황해방언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남한 영토에 편입되면서 황해도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비록 육지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을지라도 본래의 방언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군사요충지가 되면서 군인, 행정인력, 지원인력 등이 대거 유입되었다.

인접 지역과의 접촉에 의해 방언이 섞이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의 방언이 급격하게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방언접촉과는 다른 접촉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의 방언이 유입되고 이 지역 본래의 방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 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결국 본래 황해방언에 속했던 이 지역어의 속성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새롭게 형성되는 방언의 속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방언의 탈색화가 진행되었다.

인천은 이 지역 방언의 탈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천은 서해 중부 도서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자 행정구역상으로도 이들 섬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이 지역 방언의 탈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지역의 해상교통이 모두 인천으로 통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육지에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한다.

인천은 단순히 배를 통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지나 동시 거주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학업이나 생업을 위해 섬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이 인천이다. 또한 섬과 육지에 근거지를 두고 상황에 따라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대상 지역 또한 인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천에서의 거주 경험은 인천의 말이 이들 섬 지역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런데 인천말 또한 방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방언이 탈색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 특정 지역 중 하나이므로 지역어 고유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개항 이전의 인천은 그 지점을 어디로 설

정하든 그 지역 고유의 분명한 언어 정체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항 이후 인천이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인천의 정체성이나 인천말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17]

오늘날의 인천은 거대도시이자 행정구역상 광역시이지만 어디가 본래 인천인지 설정하기가 애매하다. 더욱이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천 주변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배경의 방언이 섞이게 되었다. 본래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 지역의 방언이 섞이면서 고유의 인천말이 무엇인지, 인천말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18]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자연스럽게 인천말을 수용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는 이 지역어의 '인천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용 대상인 인천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이 지역어의 탈색화는 더 빨라지게 되었다. 이 지역의 외적 상황에 의해 방언의 탈색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체가 불분명한 인천의 말까지 가세하여 탈색화는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5. 결론

이상에서 서해 중부 도서 지역어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지역어는 모두 중부방언에 속하지만 경기권, 황해권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리

17) 인천 토박이말 조사 시 문학, 월미, 숭의 세 지점을 따로 조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부평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각 하위지역의 부분적인 특징은 나타나지만 전체를 포괄할 만한 분명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인천 지역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천 본래의 언어 정체성은 있었겠지만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희미해졌고 서울 인근의 도시로서 서울말과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더 큰 거대도시이자 더 많은 타지인이 유입된 서울과 인천의 말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서울은 인천보다 방언 정체성이 더 희미해질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나 서울은 오랜 기간 동안 수도로서 분명한 지리적 위치와 사회, 역사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서울말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지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천은 이러한 정립과정 없이 거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어 그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 경기와 황해 사이의 경기-황해 전이지역과 경기와 충청 사이의 경기-충청 전이지역도 설정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중부방언의 하위방언으로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지만 두드러진 차이도 나타난다. 그리고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의 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황해도 육지 지역과 단절이 되고 많은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언어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상황이 되었다. 행정구역으로나 뱃길을 통한 교류도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방언의 탈색화 및 인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모든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지역의 특별한 상황이 더해진 결과이다. 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변화가 더 빠르고 그 결과마저 방언색이 탈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언어 정체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의 서해5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은 물론 서해 중부의 다른 도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문헌

곽충구, 「중부방언의 특징과 그 성격」, 『한국어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39쪽.

_____, 「황해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3, 409~414쪽.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2006.

김봉국, 「중부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3, 322~328쪽.

_____, 「북한 지역어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2015, 1~25쪽.

박기영, 「경기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3, 41~47쪽.

이세기,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 한겨레 출판, 2015.

이숭녕, 「덕적도 방언」, 『심악 이숭녕 전집』 11, 『조선일보』 1956년 9월 6일, 7일자, 1956(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학술정보, 2011)에 재수록.

_____, 「서해도서 조사보고서」, 『심악 이숭녕 전집』 11, 을유문화사, 1957(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학술정보, 2011)에 재수록.

이지애, 「교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한성우,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2009.

_____,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2011.

_____, 『인천 연안도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2014.

_____, 「바다, 섬, 항구, 그리고 방언」, 『탐라문화』 51, 2016, 7~32쪽.

_____, 『인천말 연구』, 소명출판, 2017.

_____, 『가깝고도 먼 인천말』, 글누림, 2018.

_____, 「서해5도 지역어와 방언구획」, 『방언학』 33, 한국방언학회, 2021, 99~128쪽.

A study on the language of the central island of the West Sea

Han Su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language of the central island of the West Sea. The central island of the West Sea refers to several islands in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Hwanghae-do.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languages of these islands were formed and changed in relation to the neighboring lands and other islands. Since this region is closely related to Incheon, it can be subdivided into Incheon coastal islands, Ganghwa Island, and the five northwestern border islands. Among the coastal islands of Incheon, the islands adjacent to Incheon can be classified as the Gyeonggi region, and five northwestern border islands can be classified as the Yellow Sea region. The Ganghwa region located between the Gyeonggi region and the Yellow Sea region can be divided into the Gyeonggi-Yellow Sea transition region. Lastly,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ngcheong dialect appear, can be divided into the Gyeonggi-Chungcheong transition region. These regional language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dialect, while each region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as an island region,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regions such as periphery, commonality, and discontinuity are also seen. Due to the break with the Hwanghae-do reg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gional language is changing

* Inha University

very rapidly. These change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colorization and Incheonization of dialects.

Key words : West Sea central island, Incheon coastal island, the five northwestern border islands, central dialect, Gyeonggi dialect, Chungcheong dialect, Hwanhae dialect, Peripherality, Discontinuity, Discoloration of dialect, Incheonization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24일